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신앙관 비교

문 백 란 박사

1. 서론
2. 언더우드의 신앙관
 - 1) 신앙형성과 선교태도
 - 2) 신앙관
3. 에비슨의 신앙관
 - 1) 신앙형성과 선교태도
 - 2) 신앙관
4. 결론

1. 서론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떠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서울에서 언더우드와 함께 일했던 게일(J. S. Gale) 선교사는 추도문에서 언더우드가 장로회와 감리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한 것이 대 유감이라는 반의적인 표현을 써서 그의 위대함을 부각시켰다.¹⁾ 미국 선교본부의 브라운(Arthur J. Brown) 총무는 언더우드가 미국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높고 영향력이 커서 안식년 때 쇄도하는 설교 초청에 거의 압도되었다고 진술했다.²⁾ 그런데 언더우드와 가장 친했던 세브란스의전의 교장 에비슨(O. R. Avison)은 “시간이 지나면 그가 지혜로웠고, 양심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경세가적 수완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며 생전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애석해 했다.³⁾

에비슨의 예견처럼 언더우드는 이후에 시시때때로 재평가되고 추앙되었다.⁴⁾ 우수한

-
- 1) 奇一牧師, 「元牧師行狀」, 『神學世界』 1권 4호 (1916), 159.
 - 2) Arthur J. Brown, “Dr. Underwood’s Service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XXIX, No. 12 (Dec., 1916), 913.
 - 3) O. R. Avison, “An Address Delivered at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Late Horace Grant Underwood, D.D., LL.D. Held at Central Y.M.C.A., Seoul, on October 19, 1916.”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12 (Dec., 1916), 324.
 - 4) 그를 알리고 연구한 것들로서 다음의 1·2차 자료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Horace Grant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New York: Macmillan Co., 1910); Mrs. Horace G. Underwood, “Horace Grance Underwood-Missionary: A Sketch of His Life and Work for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12, No. 12 (Dec., 1916);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 Fleming H. Revell, 1918); H. G. 언더우드,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김인수 역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H. G.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1-5, 이만열, 옥성득 편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07, 2010); H. G. 언더우드, 『韓國改新敎受容史』, 이광린 역 (一潮閣, 1989); L. H. 언더우드,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선교사』, 이만열 역 (기독교문사, 1990); 서정민 편역, 『韓國과 언더우드: 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의 언더우드 家』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H. G. 언더우드, 『동아시아의 종교』, 한창덕 역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奇一牧師, 「元牧師行狀」, 『神學世界』 1권 4호 (1916);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우리 나라 근대화와 선교 활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이만열,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와 활동」; 이수영, 「언더우드의 목회활동」, 김인수, 「언더우드의 한국선교」;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 공동체」·「언더우드의 문서활동」;

학자들이 그를 연구하여 그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한 점, 복음전도·성경 번역·기독교문서사업·학교교육·신학교육·신문발행·교회연합운동을 선두에서 이끌고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점, 많은 반대를 무릅쓰며 세브란스병원의 설립을 지원하고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점, 성육신의 희생정신과 에큐메니칼 건학정신을 세운 점 등을 지적했다. 그렇게 하여 기본적인 사실들을 규명하고, 그의 인물됨과 역사성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연구가 더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의 가문, 한국 밖의 행적, 사상 형성과정 등이 더 상세히 규명되어야 하고, 한국 내 활동 내역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에비슨(O. R. Avison, 1860-1956)은 익히 알려진 대로 제증원을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시키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겸직하면서 두 학교를 발전시켜 연세대학교 성립의 기반을 조성했다.⁵⁾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호흡을 같이 한 이는 물론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는 죽은 후에도 에비슨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에비슨은 1920년에 언더우드관의 정초식 연설에서 “이 대학이 출범할 때만 아니라 발전하고 지속하는 동안 영원히 언더우드의 이름이 이 대학과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언더우드와의 관계를 이 대학에서 가장 중추적인 것으로 규정했다.⁶⁾ 언더우드 부인은 남편의 전기를 쓰면서 에비슨을 빼고는 남편의 생애를 기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⁷⁾ 그런데 에비슨은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그의 활동과 사상이 어느 정도 규명되기는 했지만 그의 업적이나 일제강점기에 그가 누렸던 명성에 비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편이다.⁸⁾

-
- 김흥수, 「언더우드의 한국종교 연구」; 민영진, 전무용, 조지윤, 「언더우드의 초기 한국어 성서 번역 연구」; 김도형, 「개항 후 한국의 근대개혁과 언더우드」; 류대영, 「언더우드 청년운동의 세속적-사상적 배경」; 한규무, 「언더우드의 한국농업진흥론」; 윤경로, 「언더우드의 한국에서의 교육활동과 한국 인식」;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의 이상과 실현」; 민경배, 「언더우드와 연세정신」; 여인석, 「언더우드와 연세」; 김인회, 「언더우드의 교육정신과 연세교육」, 『언더우드 기념강연집』, 언더우드기념사업회 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새문안교회, 『원두우(元杜尤), 그 섭리(攝理)의 발자취』 (새문안교회, 2007);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쿰란출판사, 2002); 서정민, 『언더우드가 이야기』 (살림, 2005); 류금주,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전도」, 『교회사학』 9 (2010); 박용규, 「한국교회 사에서의 언더우드 위치」, 『신학지남』 통권 제281호 (2004); 정종훈, 「언더우드의 생애, 선교활동, 정신에 비추어본 기독교대학의 학풍」, 『장신논단』 Vol. 47, No. 1 (2015).
- 5) 조재국, 「연희전문학교 설립에 따른 에비슨의 교육 선교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제80집 (2015), p. 325.
- 6) O. R. Avison, “Chosen Christian College. Laying of Corner-stone of Underwood and Science Halls. Address of President O. R. Avison, M.D.,”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7, No. 12 (Dec., 1921), 245.
- 7) 그녀는 에비슨 외에 John T. Underwood를 그런 중요한 인물로 꼽았다.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14.
- 8) 에비슨의 자서전과 번역서, 전기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O. R. Avison, “Memoirs of Life in Korea,” mimeograph, 1940; ---, *Memoirs of Life in Korea*, ed. by H. W. Park (청년 의사, 2012); ---, 『舊韓末秘錄』 上、下, 에비슨 紀念事業會 역 (大邱: 大邱大學校 出版部, 1984); 올리버 R. 에비슨,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한국 42년: 1893~1935』 上、下, 박형우 편역 (청년 의사, 2010); Allen DeGray Clark, 『에비슨 전기: 한국 근대의학의 개척자』, 홍사석 외 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한국 근대 서양의학과 근대교육의 개척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연구 논저로는 조재국의 논문 외에 다음의 것들이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에비슨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강연집』 (연세의료원, 1993); 이선호,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선교사역과 에큐메니즘」,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박형우, 「올리버 알 에비슨(1860-1956)의 생애」, 『연세의사학』 13권 1호 (2010); 여인석, 「에비슨의 사상」, 『延世

1910년대 전반에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연희전문의 설립문제를 놓고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다수파를 이룬 반대자들은 1915년의 북 장로교 한국 선교회 연례모임에서 미국 선교본부가 서울의 대학설립을 승인하면서 한국의 교육기관을 “이보다 더 넓은 기초 위에 두어야 한다”고 언명하여 자신들의 선교정책을 뒤엎으려 했다고 비판했다.⁹⁾ 이런 태도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 그 당시의 재한 선교사들은 “더 넓은 기초”를 어떤 뜻으로 이해했는가? 만일 다수파가 이를 자유주의 신앙이나 세속주의가 유입되기 쉬운 환경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¹⁰⁾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과연 자유주의신학을 용인하는 입장에서 당시에 다수파가 의심했듯이 일제의 반기독교적 정책에 굴복하려 했던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그들의 신앙관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러나 신앙관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이 연구되지 못했다. 이제까지 연구된 바로는 먼저 언더우드에 대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자기 희생의 성육신 정신, 기독교 연합정신을 지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¹¹⁾ 그의 신앙이 유별나게 복음주의적인 점에서 감리교 신앙과 상통하였고 칼빈주의 목사란 자의식에서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하며 떠돌았다고 설명되기도 했다.¹²⁾

에비슨은 개방적이었고 교파 감각이 별로 없었으며,¹³⁾ 이지적이고 중립적인 신앙을 지녔다고 지적되었다.¹⁴⁾ 의료봉사 자체를 선교행위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선교’(Missio Deo)적인 선교신학을 지녀 알렌과 언더우드를 연결하는 계보를 이루었다고 주장되었다.¹⁵⁾ 또한 신앙적 정체성과 선교 열정이 확고했으며, 실천적 신앙으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했고, 진보적·근대지향적·서민적이었다고 주장되었다.¹⁶⁾

신앙관을 결정한 요인으로서는 두 사람의 성장배경이 조명되었다.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살았던 그의 가문의 신앙 환경에 미국에서 받은 신앙교육이 더해져서 신앙이 형성되었다고 설명되었다.¹⁷⁾ 언더우드가 영국의 개신교도로서 프랑스의 가톨릭 계통의 학교에 유학했고, 미국 이민 후의 화란개척교회 신학교 재학 중에 구세군에서 활동했으며, 화란개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북장로교회의 파송

『醫史學』 제13권 제2호, 2010; 이기훈, 「에비슨과 일제하 고등교육-세브란스,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延世醫史學』 13권 1호 (2010); 이만열, 「한국 의료선교와 에비슨」, 『연세의사학』 13권 1호 (2010); 권평, 「에비슨(O. R. Avison)의 인간적 면모(personality)와 그의 선교사역」, 『敎會史學』 10 (2011); 류금주, 「내한 의료선교사 O. R. 에비슨의 한국 선교」, 『敎會史學』 10, 2011; 이선호,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연희전문학교 사역」, 『신학논단』 제64집 (2011); 박형우·이선호,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의료선교사 지원과 내한 과정」, 『역사와 경계』 84 (2012).

9)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15, 10-11.

10) 민경배는 ‘더 넓은 기초’를 ‘근대주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했다, 민경배, op. cit., 466.

11) 민경배, Ibid., 448; 정종훈, op. cit., 248-252.

12)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우리 나라 근대화와 선교 활동』, 29.

13) 이광린, 「에비슨 박사의 삶」, 『에비슨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강연집』, 63.

14) 이만열, 「에비슨이 한국 역사와 기독교에 끼친 영향」, 『에비슨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강연집』, 142.

15) 류금주, op. cit., 339-341.

16) 조재국, op. cit., 347-352.

17) 윤경로, 「언더우드의 한국에서의 교육활동과 한국 인식」, 361.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초교파적인 성격을 형성했다는 설명도 행해졌다.¹⁸⁾ 언더우드와 부친의 경건한 전천년주의 신앙이나 보수적인 화란개척교회로부터 공급받지 못했던 부분을 뉴욕대학 시절에 도시적 자유분방함과 다양함으로 채우고, 그 때 가입한 델타 윌실론이란 단체의 자유주의와 인류애로 채움으로써 신앙과 사고에서 균형감을 갖고 학문과 세계관의 편협함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⁹⁾ 에비슨에 대해서는 그가 선교사로 오기 전까지 살아온 환경, 교육, 경험을 통해 종교적 포용성을 갖게 되었고, 협력과 연합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이루어졌다.²⁰⁾

그런데 성장환경과 교육배경에 의거하여 신앙의 성격을 진단하려 했던 이상의 시도들은 많은 경우에 더 중요한 당사자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개연성이 높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진술로써 이를 입증하지 않아 개연성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주장들을 제기했다. 이를 테면, '성육신의 정신'은 언더우드에게만 아니라 본국을 떠난 모든 선교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기독교의 모든 종파들 및 교파들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어떤 주장들은 신학적인 오해를 동반했다. 이를테면 언더우드의 신앙적 배경이 된 개혁신앙, 경건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 안에도 사회개혁적이고, 통합적이고, 근대적인 측면이 있었던 사실을 간과했다. 그리하여 언더우드로 하여금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을 취사하게 만들었을 내면적인 선행 요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만일 그의 신앙관이 단지 다양한 요소들로 보충된 것, 곧 여러 조각들로 기워진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것처럼 무서운 집중력과 돌파력을 그의 삶에서 일관되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은 1905년에 현실적인 필요에서 교파연합을 지지하는 편에 섰던 많은 선교사들이 의욕을 잃고 돌아섰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190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6개 교파 선교사들이 선교공의회를 조직하면서 교파의 구별이 없는 단 하나의 한국교회를 만드는 것이 공의회의 목표라고 선언했을 때는 이를 드러내고 반대한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을 논의할 때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W. D. Reynolds)는 자기가 13년 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장로교끼리의 연합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다른 분위기 속에서 생각이 달라져 복음주의 교파들의 연합 및 본토교회의 연합을 믿게 되었다고 발언했다.²¹⁾ 레이놀즈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대부분 그러했던 것은 1907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12신경이 감리회와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²²⁾ 이런 점

18) 정종훈, op. cit., 252.

19) 류대영, op. cit., 291, 309.

20) 여인석, 「에비슨의 사상」, 75; 이선희,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선교사역과 에큐메니즘」, 『教會史學』 10 (2011), 185; 박형우, op. cit., 10; 박형우·이선희, op. cit., 164.

21) S. F. Moore, "Steps toward Missionary Union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XVIII, No. 12 (Dec. 1905), 903-904.

22) 이 사실은 클라크 선교사와 박형룡의 진술로써 입증된다. “且 장로 감리 양 교회 연합문제를 인하여

들에서 어느 시기의 신학이나 신앙문제를 다루려면 해당 시기의 제반 여건들을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언더우드와 예비슨의 한글 기사들²³⁾과 영문 편지·기사의 진술들에 근거하여 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비교하려 한다. 그리하여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최초의 성직자 선교사라 불릴 만하게 보수적이었고, 예비슨은 대체로 보수적이었지만 진보를 포용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될 것이다.

2. 언더우드의 신앙관

1) 신앙형성과 선교태도

(1) 신앙형성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2세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언더우드 부인은 언더우드 전기에서 남편의 외증조부가 회중교회 목사로서 초교파적인 연합선교운동을 강력히 제창했던 사실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의 증손자의 이상이 일치(unity)였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²⁴⁾ 이런 가풍은 언더우드가 10-12세 때 프랑스의 가톨릭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개신교를 포기하지는 않았어도 다른 기독교 종파를 관용하는 법을 체화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언더우드가 부친으로부터는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물려받아 한국인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²⁵⁾

그의 가족은 오늘날 뉴욕에서 가까운 뉴저지 주의 뉴 더럼(New Durham)에서 살면서 화란개혁신교회인 그로브교회(Grove Church)를 다녔다.²⁶⁾ 그는 1877년부터 그곳에서 뉴욕대학까지 통학했고, 1881년에 졸업한 후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에 있는 화란 개혁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교 시절에는 그의 교회 담임목사였던 메이븐(William August Van Vranken Mabon) 박사로부터 조직신학을 배웠고, 학칙으로 학기 중에는 금지된 전도활동을 쉬지 않았으며, 일요일이면 뉴브런즈윅의 교회들에서 7,8번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1884년에 신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해에 뉴욕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그 해 11월에 화란개혁신교회의 뉴브런즈윅 노회(Classis)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나, 한국

회집하였을 시에 연론한 감리교파 선교사의 말이 양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 감리파가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채용하기가 극난하나 此 인도국에서 出來한 신경을 채용하기가 不難하다 하였으니 감리파의 타 교역자는 여하게 思할는지 不知하거니와 가히 알만한 事이니라.” 淸安軒, 「조선야소교장로회신경론」, 『신학지남』 2권 1호 (1919), 74. 박형룡은 선교사 헌법위원들이 이 신경을 준비하여 동료들에게 제출할 때 “此 신경은 諸 교회 간에 연합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노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기술했다. 박형룡, 「신경소론」, 『신학지남』 20권 6호 (1938), 13.

23) 장로교신학교의 『신학지남』(1918)과 감리교 협성신학교의 『신학세계』(1918)에 언더우드의 한글 설교문 세 편이 실려 있다. 예수교서교회에 의해 발행된 『원두우강도취집』(1920)과 문장을 다듬어 다시 발행된 『원두우강연집』(1927)에는 이 세 편을 포함하여 총 12편의 설교문이 실려 있다. 예비슨이 한글로 쓴 신학적 변증문은 『신학세계』(1929-30)에서 두 편이 게재되었다.

24)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6.

25) Ibid., 19.

26) 그들은 이민 직후부터 그 교회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영국 교회의 이명증 송부가 지연되어 출석하기 시작한지 2년이 지난 1874년 12월 5일에 정식교인으로 등록되었다. Ibid., 22-23.

으로 떠나기에 앞서 장로교 뉴저지 노회(Presbytery)로 옮겨갔다.²⁷⁾

이상과 같이 그는 영국 청교도 회중교회주의의 가풍 속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미국으로 이주해서 한국으로 갈 때까지의 전체 기간인 10대의 대부분과 20대 전반을, 1909년도 미국내 기독교 교파순위 통계에서 총 31개 중 29위를 차지했던²⁸⁾ 군소 교파 교회인 화란개혁신학회의 감화력 안에서 보냈다. 이 기간에 담임목사였고 언더우드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 안수식 때의 설교자였던 메이븐의 활동과 인격과 성향이 언더우드와 크게 유사하여 롤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⁹⁾

미국의 화란개혁신학회는 17세기 초에 시작된 네덜란드 이민들의 인종적인 집단이었으나 점점 미국화 하여 예배 때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1867년에는 교단 명칭에서 'Dutch'란 말을 삭제했다.³⁰⁾ 따라서 언더우드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많이 미국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 전통은 계속 유지해왔는데, 개혁신학회는 쾰링과 칼빈 등이 주도한 스위스 종교개혁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신학의 기본 노선 위에 있고, 그런 점에서 장로교회와 더불어 국제적인 개혁주의 공동체의 유산을 나눈다.³¹⁾ 그러나 타 교파 대한 포용성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려는 의지가 더 크고 폭넓은 점에서 구별되며,³²⁾ 언더우드는 성장기에 이런 개혁신학회의 영향을 받았다.

(2) 선교태도

언더우드는 이런 신앙 성향을 가지고 한국의 색다른 환경에서 적절한 활동

27) Ibid., 33-37.

28) Editor, "American Church Statics for 1909, Order of Denomination: Prepared for the Christian Advocate, by Dr. H. K. Carroll,"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XXIII, No. 5 (May, 1910).

29) 메이븐 목사도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전도활동에 주력했다고 한다. 『아펜젤러·언더우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제4회 아펜젤러 학술포럼·제8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5. 5. 31-32, 45.

30) Christopher P. Scheitle & Kevin D. Dougherty, "Density and Growth in a Congregational Population: Reformed Churches in New York, 1628-2000,"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Vol. 49, No. 3 (Mar., 2008), 240.

31) Anthony Milton, "Puritanism and the continental Reformed church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ritanism*, ed. by John Coffey and Paul C. H. L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22.

32) 개혁신학회는 장로교회가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지 않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돌트 신경(Canons of Dort)을 신앙표준으로 내세운다. 이 중에서 그들이 가장 앞세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와 칼빈 등의 모든 종교개혁 운동들을 통합하여 교회일치의 비전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1563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17세기에 화란에서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교회와 사회 전체 그리고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2의 종교개혁'(Nadere Reformatie)이 전개되었는데, 이런 노력으로 개혁신학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을 실천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신앙유형은 사실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아래 두고 그 공동체를 '언약 위의 도시'로 만들려 했던 미국 청교도의 신앙유형과 상통한다. 이는 다 함께 개혁주의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이지만, 개혁신학회가 이런 면에서 더 돋보인다. 주도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정신」, 『한국개혁신학』 40 (2013), 208-209; 변종길, 「화란 개혁신학회의 영성과 경건-Gisbertus Voetius를 중심으로」, 『교회와 문화』 6 (2001); Francis J. Bremer, "The Puritan Experiment in New England, 1630-1660,"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ritanism*, 127.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언더우드 부인은 남편의 사후에 발표한 글에서 언더우드의 자애로운 품성을 강조하며 그가 한국 국왕에게도 연민의 마음으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언더우드도 사실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줄을 알았다. 그는 선교를 위해 그들 앞에 “쓸데없는 장애물이 놓이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최대한 호감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하지만 국민의 호의가 없이는 이런 것이 소용없게 되므로 국민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애써야 한다고 또한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서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서도 실리가 적은 편을 버리고 더 큰 편을 택하기보다는 양편을 모두 택하여 다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것을 선호했다. 결국 이런 태도는 그의 활동 방식과 그가 겪은 고초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려 했던 다른 많은 선교사들, 특히 평양의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근본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런 태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새롭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도 한국에 대한 경험적, 지적인 지식이었을 것이다.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에게 교육으로 기회를 주면 그들이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여 한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³⁴⁾ 그가 동료 선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인 한국인식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한국에서 얻은 남다른 지식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게일 선교사의 언더우드 추도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게일은 언더우드가 선교 초기에 송덕조(宋德祚)란 선비로부터 조선어를 배우면서 “정약용(丁若鏞), 이가환(李家寰), 남상달(南尙達), 홍종삼(洪鍾三) 제씨의 규정한 국문수용법(國文需用法)을 채용하여 영한자전과 신구약성경 번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³⁵⁾ 여기에서 게일이 언급한 이들은 모두 남인 관료 또는 양반으로서 천주교와 관련하여 유배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이들이다.³⁶⁾ 천주교인이 된 남인 양반들은 서민에게 포교하기 위해 순 한글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한글로 설명하는 용법이 만들어졌다. 언더우드의 어학선생인 송덕조는 천주교인으로서 전에 프랑스인 신부들의 어학선생이었고 한불자전의 편찬 작업을 도왔기 때문에 언더우드에게 그런 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었다. 언더우드는 그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God”을 “천주”라고 불렀다. 그가 1894년에 펴낸 『예수교문답』을 보면 천주교의 용어와 어투가 채용되어 있다.³⁷⁾

33) H. G. Underwood, "Conference: Twenty Years Missionary Work in Korea." *The Korea Field* (Nov. 1904), 207.

34) 윤경로, *Ibid.*, 360.

35) 奇一牧師, *op. cit.*, 157. ‘송덕조’의 본명은 ‘宋淳容’이고 ‘덕조’는 자이다.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July 6, 1885; H. G.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1. 이곳과 이하의 한글 기사 인용문들은 모두 본문의 고어를 현대어로 바꾼 것이다.

36) 정약용과 이가환은 신유박해(1801) 때 유배와 죽임을 당했다. 남상달과 홍종삼은 병인박해(1866) 때 순교한 남종삼과 홍봉주를 뜻한 것 같다. 감옥에서 옥사한 이가환의 ‘寰’도 ‘煥’으로 고쳐야 한다. 최재건, 『조선후기 서학의 수용과 발전』 (한울, 2005), 162-169, 260-264.

37)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이 쓴 『주교요지』와 비교하면 문구가 같은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예수교문답』에서는 “아니계신곳이업서니르논바각쳐에다게시니라”라고 되어 있고, 『주교요지』에서는 “아니계신곳이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또 『예수교문답』에서는 “스스로계신뜻이라”로 되어 있고 『주교요지』에서는 “본디게시고스스로게시니라”로 되어 있다. 원두우, 『예수교문답』 (그리스도성서, 1896), 2, 5; 정약종, 「주교요지」(1885년 간행 목판본), 『주교요지(下)』 (국학자료원, 2003), 681, 684.

그런데 게일의 주도문 문장에서 더 유의할 것은 게일이 한글 서학서의 저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약용, 이가환 등의 이름을 나열했다는 점이다. 게일은 그 당시 서양인 한국학 연구의 대가로서 한국의 고전들을 직접 읽고 연구했는데, 기사를 추앙했던 주류 사족의 시각을 중시하여 한국문화의 중국 종속성을 강조했다.³⁸⁾ 그에 반해 한국학의 또 다른 대가였던 헐버트(H. B. Hulbert) 감리교 선교사는 단군을 중시했던 조선 후기 비논계의 시각을 좇아 한국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했다.³⁹⁾ 언더우드는 사실상으로 게일보다 헐버트와 더 친했고, 한국인식에 있어서 헐버트와 상통하는 면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언더우드는 게일이 선호했던 것과는 다른 조선 사족의 사상적 맥락과 더 친근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신앙관

(1) 성경관

성경번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⁴⁰⁾ 언더우드가 성경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18년에 감리교신학교의 『신학세계』에서 소개된 「성경은 무엇이뇨」란 제목의 짧은 설교문은 언더우드의 성경관이 대략 어떠했는지를 알려준다. 언더우드는 성경 66권이 2천 년 동안 대략 40명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장소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여러 제목으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다만 한 뜻을 가진 온전한 책”이며, 여기에 여러 목적이 연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⁴¹⁾ 그 목적에 관해서는 세 가지 점을 거론했다. 첫째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심’, ‘선지자로 하신 일’, ‘시편을 기록함’,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성경은 개인·가정·지파·나라의 거룩함을 구하게 하고 우주의 시작과 종말 이후를 알게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성경이 여러 권으로 되어있고 구약과 신약이 예수의 강림 전후로 나뉘어 있지만 교훈은 한 가지 뿐이라고 주장했다.⁴²⁾ 그런 다음 이 책은 “여호와와의 지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만 참 이치를 알 수 있고 “성신”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그 오묘한 뜻을 알 수 있으므로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늘 기도하며 그 깊은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38) 이용민, 「게일과 헐버트의 한국사 이해-서로의 상반된 사관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2007.

39) 예를 들면, 헐버트는 영어로 한국사를 서술하면서 현재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란 『東史綱要』를 주 자료의 하나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남인 吳澐의 『東史纂要』(1606), 소론의 林象德의 『東史會綱』(1711-19), 대북인 趙挺의 『東史補遺』(1646)와 조선 전기의 官撰史書인 『東國通鑑』을 요약 편집한 것이었다. H. B. Hulbert, "Ancient Korea," *The Korea Review* (Jan. 1901), 30: ---, "Korean Survivals,"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 1900.

40) 언더우드는 1877년에 그가 주도해서 만든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후에 계속 성경번역에 종사했다. 1901년까지는 그가 누가복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 1·2·3서, 유다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번역했다. 그는 디모데전후서도 번역했고, 1915년 여름에는 이사야서 개역작업을 했다. 「교회통신」, 『그리스도신문』 5권 18호, 1901년 5월 2일, 2; 민영진, 전무용, 조지윤, op. cit., 214; Mrs. Horace G. Underwood, "Horace Grance Underwood-Missionary," 907.

41) 원두우, 「성경은 무엇이뇨」, 『신학세계』 제3권 제3호 (1918), 55-57.

42) Ibid., p. 57.

43) Ibid., p. 57-58.

이렇게 하여 그는 ① 성경 내용의 통일성을 거듭 확인했고, ② 그 내용이 인간의 구원 문제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거룩함을 실현하는 문제까지 모두 망라하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③ 성령의 영감에 의한 성경 기록과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는 성경 해석을 주장했다. ①의 확인은 그가 강력한 내세론자이면서도 192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크게 유행한 세대주의와는 차별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러낸다. 성경 내용의 통일성을 강조한 언더우드와 달리 세대주의는 계시의 세대별 불연속성을 주장하고 구약을 율법시대로 신약을 은혜시대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대비시킨다.⁴⁴⁾ ②의 강조는 그가 선교의 목표를 사람을 개종시키고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고양시키는 데까지 두고 있었던 것을 드러낸다.⁴⁵⁾ ③에서는 그가 성령의 영감을 강조하면서도 독자영감설이나 성경의 문자주의 해석 문제에 관한 소견을 드러내지 않고 난해한 부분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 것과 기도하며 성경을 보라는 것만 주문했다.

(2) 구원관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

언더우드는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전도를 본업으로 여겼다. 에비슨은 언더우드를 추모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쏟은 것은 복음전도였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일을 덜 해야 했을 때 크게 슬퍼했다고 회고했다.⁴⁶⁾ 설교문에서 드러나는 그의 구원론은 개종문제와 그 이후 신자의 삶의 문제를 직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을 그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설교문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사람은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救主)로 믿는 것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⁴⁷⁾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랑의 사슬에 매인다.⁴⁸⁾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된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44) 예를 들면, 1920년대와 30년대 전반에 종말론을 강조했던 길선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일곱 시대로 구분했다. ① 무죄시대, ②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양심시대, ③ 아브라함 때까지의 인권시대, ④ 모세의 때까지의 허락시대, ⑤ 예수 초림 때까지의 율법시대, ⑥ 7년대환란 끝까지의 은혜시대, ⑦ 천년왕국시대부터 무궁시대까지의 안식시대. 길선주, 「말세학」, 『信仰生活』 4권 7호 - 5권 10호 (1935. 7. - 1936. 11.).

45) 이런 주관은 1904년 한국선교 20주년 기념대회 때 한 연설에서도 밝히 드러났다. “내게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통솔하고 영향을 줍니다. 나는 유능하고 잘 훈련되고 철저히 성별된 본토인이 목회하는 하나의 조직교회를 봅니다. ...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즐거운 영향력의 팔을 뻗치되 한 팔은 중국에게 다른 팔은 일본에게 뻗쳐 한 나라의 편견과 보수주의를 누그러뜨리고 다른 나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세 나라가 함께 그리스도 국가들의 위대한 권역을 이루고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며 왕들 중의 왕 주들 중의 주 예수를 큰 소리로 맞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H. G. Underwood, “Conference.” 209-210.

46) O. R. Avison, op. cit., 323.

47)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1): 예수교회의 사기(史記)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 『기독교사상』 10월호 (2012), 146. ---, 「원두우 강연집(4):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 『기독교사상』 2월호 (2013), 87; 원두우, 「하나님의 높이 부르신 상을 얻고자 함」, 『신학세계』 제3권 제4호 (1918), 35.

48)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1)」, 145.

점차 온전한 사람이 되며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⁴⁹⁾ 교회는 구주가 머리되어 다스리는 곳으로 이 안에서 예수의 속죄의 피로 모든 신자들이 한 식구가 된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천주교를 불문하고 진실히 믿는 사람은 다 이 교회에 붙은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 인생의 죄를 대신 지게 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⁵⁰⁾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다만 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나아가야 한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 한 것은 세상에서 아주 떠나라는 뜻이나 천주교처럼 따로 서고 무슨 특별한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무리에서 나오고 세상의 쾌락이나 재물이나 웃음거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다.⁵¹⁾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있으니 이로써 그리스도와 신자가 오묘하게 연합하는 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⁵²⁾ 예수가 죽은 것을 알고 부활 승천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예수가 지금도 강림하여 있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한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⁵³⁾ 십자가의 본뜻은 사소한 어려움을 겪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이다. 예전의 악한 마음과 성질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예수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기꺼이 당하고 자기 생명을 재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쫓는 사람에게는 예수와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다스리는 세 가지 길이 있다.⁵⁴⁾

이상과 같이 언더우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모든 신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한 식구 또는 하나의 유기체가 된 사실을 강조한다. 이 연합에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은 물론 천주교까지도 참여한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함을 도모한다. 신자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모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쾌락과 재물과 희롱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언더우드에게 있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은 신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자기부인과 희생 및 헌신의 정신을 현실에서 순간순간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락을 누리는 것 자체에 있고 나아가 내세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다.

49) Ibid., 146.

50)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4)」, 87. 원두우, 「하나님의 높이 부르신 상을 얻고자 함」, 35, 36.

51)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1)」, 146.

52) 원두우, 「故元杜尤牧師의遺書와如會講道: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라」, 『神學指南』 1호 (1918), 90;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9):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라」, 『기독교사상』 7월호, 2013, 110-111.

53)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10): 예수와 같이 고생하면 예수와 같이 즐거워하리라」, 『기독교사상』 8월호, 2013, p. 70-71.

54) Ibid., 72.

(3) 내세관

언더우드도 현세에서 받는 복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복이다.⁵⁵⁾ 천국에서는 더 많은 복을 받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예수의 칭찬과 함께 수고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한 내세가 있음을 아는 방법은 믿음이다.⁵⁶⁾ 신자들은 그들도 그리스도처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⁵⁷⁾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와 같이 있으면서 함께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4) 통전적 신앙관

언더우드는 신자들에게 현세 안의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현실도피적인 삶을 권하지도 않았다. 내세의 희락과 상급을 바라며 현세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구현하기를 바랐던 그의 신앙관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사명 의식을 뒷받침했다. 이런 것은 그가 1897년 4월 1일부터 사비를 들여 『그리스도신문』이란 순한글 신문을 발행했던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는 이 신문을 통해 국내외 뉴스와 다방면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한국인들을 계몽하려 했다. 그러나 동료 선교사들은 이 일을 반대했다. 마땅은 복음의 구심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른 수단을 쓰지 말고 복음 자체만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복음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해왔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말이 강조되고 다시 강조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요! 재정이나 교육이나 다른 이기들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다른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핵심 진리로부터 관심을 끌어가서 호소력을 약화시키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면 그들로부터 영적인 힘과 강한 신앙을 박탈시킵니다.⁵⁸⁾

그는 이런 생각에서 기독교인 자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⁹⁾ 이런 주장은 한말의 소란스런 정국 속에서 대다수의 선교사들의 공감을 샀다. 평북 선천에서 활동한 휘트모어는 “우리 [선교사들]는 도시생활의 유혹 때문에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55)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2): 신자의 본문과 행할 일」, 『기독교사상』 12월호, 2012, 110-112.

56)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11): 다음 세상」, 『기독교사상』 9월호, 2013, 92.

57)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12): 부활절의 의미」, 『기독교사상』 10월호, 2013, 95.

58) Samuel A. Moffett to F. F. Ellinwood, April 6, 1898. 참조: Robert E. Speer,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A Discussion of Christian Missions and of Some Criticisms upon Them*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2), p. 66.

59) Samuel A. Moffett to F. F. Ellinwood, Jan. 14, 1902.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주장했다.⁶⁰⁾

결국 신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시끄럽게 되자 언더우드는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신문의 발행목적을 설명하며 그의 입장을 해명했다.

평양지회 보고서의 사본을 당신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들이 기독교신문에는 일반 뉴스나 해외 뉴스나 정치 뉴스나 광고가 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한 가지 주제에 국한시킵니다. 바울 사도의 진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이 잘못 해석된 채 모국에서 많이 말해져서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그들에게 통전적인 복음(all round gospel)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신문』은 통전적인 기독교 가족신문입니다. 농부를 위한 영농 분야의 정보, 기술자를 위한 기술과 과학 정보, 상인을 위한 시장보고, 기독교가정을 위한 가정생활 기사, 모든 것을 기독교 방식으로 제공하여 『그리스도신문』을 통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⁶¹⁾

언더우드는 이처럼 평양 측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상반된 주장들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이 구절을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고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발행비를 조달하는 부담과 동료들의 반대를 무릅쓰려 했다. 다른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교회 안에 붙들어놓으려 했지만, 언더우드는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모든 방면에 손을 뻗쳐 그 모든 길목들에 기독교의 안내자를 세우려 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이란 삶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복음이라고 믿었다. 이는 위에서 거론했듯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개혁주의 신앙, 더 좁게는 개혁교회신앙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신앙 위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국제사회 모든 부분으로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켰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아래로 이끌려 했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으로 엮으려 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 일에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려 했다.

3. 에비슨의 신앙관

60) Norman C. Whittemore to F. F. Ellinwood, Nov. 10, 1899.

61)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Dec. 10, 1900; 문백란, 「한말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과 선교활동」,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80.

1) 신앙형성과 선교태도

(1) 신앙형성

에비슨은 그의 사상형성 과정과 주관이 무엇인지를 그 자신의 진술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1931년에 『기독신보』에 게재되고 1940년에 저술된 그의 자서전은 그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던 것, 교회를 다니는 가정환경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부친으로부터 급진적인 경제·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았고,⁶²⁾ 평화를 사랑하고 시를 즐기는 법을 배웠던 것,⁶³⁾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를 때 아무리 어려워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면 해결방법이 생기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교파의 차이를 넘어 연합하면 유익한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성장과정에서 체험했던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에비슨은 아버지의 가정교육을 통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기본 바탕을 닦아 진보적 지향성과 인간적 감수성을 갖게 되었고, 그가 성장해가는 동안 신심을 점점 더 돈독히 하게 되었으며, 사회 환경과 체험을 통해 연합의 유익함을 체득했고, 난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법을 익혔다. 그러므로 언더우드가 독실한 가정환경을 바탕으로 신앙 안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익힌 것과 달리 에비슨은 성장해 가는 동안 가정의 영향력과 교회 안팎의 사회적 영향력과 종교적 영향력을 한데 아우르고 소화해가면서 신앙세계를 형성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정의와 국제평화를 희구했지만 사적인 야심은 없었고, 과학을 신뢰했다.⁶⁴⁾

(2) 선교태도

에비슨은 자조, 현실주의, 현지주의의 선교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⁶⁵⁾ 여기에 그의 선교태도가 잘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는 연합활동의 중요성만 아니라 현지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일찍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그가 선교사 역할의 한계성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00년 뉴욕 에큐메니칼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은 한시적인 것이므로 본토인들이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⁶⁾ 그 후에도 종종 선교사들의 역할은 일의 시작을 이루는 데 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⁶⁷⁾ 그리고 이런 의식에서 강한 교육 의지를 갖고 의료인 양성과 청년 교육에 진력했다.

62) O. R. Avison, "Memoirs of Life in Korea," 20-22; 河鯉泳·[에비슨], 「魚丕信博士小傳 (一)」, 『基督申報』, 1932. 1. 6, 7면.

63) Ibid.: [에비슨], 「休戰紀念 大講演 平和 (下)」, 『基督申報』, 1932. 11. 23, 4면.

64) [에비슨], 「魚丕信博士小傳 (二)」, 『基督申報』, 1932. 1. 13, 4면; 「魚丕信博士小傳 (四) 그의소년시대 (속)」, 『基督申報』, 1932. 1. 27, 7면; 「魚丕信博士小傳 (五) 그의 소년시대 (속)」, 『基督申報』, 1932. 2. 3, 8면.

65) 여인석, op. cit., 81.

66) O. R. Avison, "Medical Training of Native Helpers," *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 New York, 1900*, Vol. II,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0, 224.

67) O. R. Avison, "Chosen Christian College," 246; O. R. Avison, "Memoirs of Life in Korea," 3.

또한 이런 맥락에서 현지인의 자립적, 자조적, 주체적 활동을 강조했다.⁶⁸⁾ 1924년에 발표한 글에서는 동료 선교사들을 향해 한국인들의 협조를 얻으려 하지 말고 한국인들에게 협조할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선교사들의 힘과 자금으로 이 나라의 복음화를 다 이룰 수 없으므로 한국인에게 그 부담을 넘기자는 뜻에서 제기되었다.⁶⁹⁾ 그렇게 하는 방안은 미션계 학교들을 한국인들이 따라하고 싶어할만한 시범학교로 만들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시범학교를 육성하는 일에 지원을 집중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최종 책임을 한국인에게 넘기는 것이었다.⁷⁰⁾

한편 일본 당국을 상대해서는 제도권 안에서의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⁷¹⁾ 대일관계 문제는 사실 선교사들에게도 대처하기 곤란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08년의 제1회 세브란스의학교 졸업식 때 그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일부 순서를 맡겼던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토는 수많은 국내외 내빈들 앞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축사를 하면서 대한병원은 최근에 개원하여 그 부속 의학교가 졸업생을 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으나 서양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의사들에게 서양의 문명화된 의학을 배운 졸업생들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의학발전의 개척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⁷²⁾ 그 후 에비슨도 연설하면서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것을 아래와 같이 자랑했다. 이 인용문은 *The Korea Mission Field* 1908년 8월호 기사 중의 한 부분이다.

[에비슨은] 한국인의 진정한 자질을 전혀 모르는 어떤 이들이 그들[한국인들]은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퇴보하는 인종이라고 진술했던 사실들을 언급하며 자기는 1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가르친 후에 그들의 능력과 정신적 자질을 아는 자리에 있게 되어 이런 관점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조금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이는 졸업자들이 모든 과목에서 평균 최고 92점과 최하 72점을 얻고 전체적으로는 83점을 얻은 사실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고 말하였다.⁷³⁾

68) 이만열, 「에비슨이 한국 역사와 기독교에 끼친 영향」, 143, 145.

69) O. R. Avison, “Can It Be Done?”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0, No. 1 (Jan., 1924), 8-9; 여인석, op. cit., 79.

70) Ibid., 9-10. 에비슨은 또한 두 시범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각종학교 학생들도 시범학교 편입시험 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누릴 방안을 제시했다.

71) 참고로 이선희는 에비슨의 정치적 수완이 탁월하여 그가 총독부와 일왕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독립유공훈장과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평은 에비슨이 1908년 의학교 제1회 졸업식을 위해 이토 통감으로부터 군용천막을 빌리고 연설을 요청할 정도로 대단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은 처세술에 초점을 맞추고 본인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나온 판단이다. 여인석은 에비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의 면허취득과 의료행위는 그 나라의-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제도적 틀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선교사역과 에큐메니즘」, 189-190, 216; 권평, op. cit., 321; 여인석, op. cit., 80.

72) Editor, “Graduation Exercises. First Graduating Class, Sevrance Hospital Medical College, Seoul, Korea, June, 3rd 1908, 4 p.m.” *The Korea Mission Field*, Vol. 4, No. 8 (Aug., 1908), 125-126.

에비슨은 이처럼 졸업생들의 우수한 성적을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하고 공표했다. 에비슨의 이 발언은 사실 상당히 대담했다. 이는 그 전 해에 이토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예일대의 래드(G. T. Ladd) 교수가 미국에서 한국인들과 재한 선교사들을 매도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내용의 책을 발행하여 1908년 초에 선교사들에게 크게 분노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⁷⁴⁾ 졸업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토의 면전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The Korea Mission Field*의 이 기사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당시 분위기가 이토를 압도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여하튼 간에 이 기사는 에비슨이 일본 당국을 상대할 때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어떤 주관도 없는 채로 타협적이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을 일부 조명해준다.

2) 신앙관

(1) 연합사상

에비슨은 1930년에 발표한 글에서 교회연합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 드러냈다. 그는 ‘불공정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 기독교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에 연합의 당위성을 몇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성경구절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신도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고 도전했다.⁷⁵⁾

다음에 교리적,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기독교신앙의 근본 원칙이 같으므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화를 이룰 있다고 주장했다.⁷⁶⁾ 그러면서 감리교인들은 장로교의 “예정설을 조소”하며 그것이 감리교의 자유론에 절대 반대된다고 믿지만 두 이론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완전한 의견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⁷⁷⁾ 그 자신이 감리교인으로 자라났고, 한국에서 장로교인으로 살아 장로까지 되었는데, 37년간 장로교 경험과 33년간 감리교 경험에서 양 교파 간에 병존치

73) “Graduation Exercises,” 126. 에비슨은 후일에 이 성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토론토대학 의학부에 있을 때에 학생시험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마는 당시 일곱 명 학생의 성적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보지 못하였다. … 얼마 전에 나는 집 어느 구석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하였다. 펴본 즉 그 때 낸 시험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본국[캐나다]에서 보통으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에비슨], 「魚丕信博士小傳 (廿六) 조선의료교육의시작 (三)」, 『基督申報』, 1932. 7. 20, 5면.

74) 래드는 1907년 3월 말에 내한하여 이토의 접대와 안내를 받으며 여러 곳을 방문한 후 1908년에 미국에서 *In Korea with Marquis Ito*란 책을 발행했다. 그 책이 발행되기 전에 래드가 뉴욕에서 북장로교 선교부 임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재한 선교사들이 교인수를 늘리려고 세례를 마구 주어 한국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서너 세대가 지나야 있게 될 것이고, 현재 기독교운동은 순전히 정치적이며, 선교사들은 동양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퇴화되고 교정 불가능한 한국인의 수준을 따라 내려가지 말고 더 높은 도덕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한국으로 전해져서 1908년 초에 여러 선교사들이 분개하며 래드를 성토했다. 에비슨의 이런 졸업식 발언은 래드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Walter Erdman, Feb. 5, 1905(수신자 불명). 참고: George Trumbull Ladd, *In Korea with Marquis It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8).

75) 魚丕信 博士, 「教會聯合」, 『基督申報』, 1930. 8. 27, 5면. 이 기사는 7월 4일에 열린 전조선 교역자하기 수양회에서 강연한 것이다

76) 근본원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경의 권위와 기능의 인정을 들었다.

77) 魚丕信, 「教會聯合」, 『基督申報』, 1930. 9. 3, 3면

못할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체험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가 처음 선교사가 되었을 때 북장로교 선교 본부의 총무인 엘린우드가 감리교인인 자기에게 감리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격려하고 그들의 선교 목적은 장로교 육성이 아닌 기독교 전파에 있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장로교 선교사로 나갈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한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교파심이 없어 1907년에 독노회를 조직할 때 단일교회의 설립을 꾀했으나, 교파심이 많은 소수의 주장과 장·감 교회의 조직으로 인해 양 교파의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한국교인들까지 교파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남북감리교가 연합하게 된 것을 기해 장로교도 연합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 일을 위해 양 교회가 직제를 조화시키고, 신학교육도 합동으로 하며, 중등학교 경영도 연합으로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⁷⁸⁾

에비슨은 이처럼 장로회와 감리회가 교리와 직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장로교의 예정론과 감리교의 자유의지론을 합하면 성경적으로 완전한 의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직제의 조화와 신학교·중등학교 교육의 통합까지 역설했다.

(2) 과학적 신앙관

에비슨은 1920년에 그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을 지은 경위 등을 설명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생애가 “매우 분명한 일련의 기도응답들로 이루어져왔다”고 말했다.⁷⁹⁾ 1916년도의 다른 글에서는 그가 기도한 후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환자 치료의 통찰력을 얻는 경험을 하곤 했다고 토로했다.⁸⁰⁾ 이 글들은 그가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했고, 은밀한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으며,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미리 믿고 위탁하는 신앙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한편 1929-30년에 『神學世界』에 발표된 두 편의 한글 기사는 신학적인 소견을 펼친 글로서 에비슨의 신앙관의 실체를 더 자세히 보여준다. 그는 현대사회의 과학적 지식의 증대가 신앙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천지창조의 순서를 진화의 과정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과정에서 변함없이 표현되었다고 주장했다.⁸¹⁾ 그런 다음 그 자신의 과학 연구에 따른 신앙의 발전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의견과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론은 다 현대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결론한 것인데 이것들로 인하여 나의 신앙심은 더욱 견고케

78) 魚丕信, 「教會聯合 (三)」, 『基督申報』, 1930. 9. 10, 3면.

79) O. R. Avison, “Instance of Answered Prayer,”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2 (Feb., 1920), 29-32.

80) C. L. McLaren, “Notes on an Enquir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2 (Feb., 1916), 37; 여인석, op. cit., 82.

81) 魚丕信博士, 「하나님을엇더케알가」, 『神學世界』 14권 3호 (1929), 60-61.

되었다. 이리하여 나의 현금(現今) 신앙은 단순히 조상이 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에 표현하신 과학적 사실을 연구한 데서 얻은 개인적 자신(自信)이다. 물론 우리 조상이 준 신앙을 다 무자격(無價格)하게 버리고 파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 잘 조사하여 혹 틀린 것과 불완전한 것이 있다 하면 아무리 긴 역사를 가진 신앙관이라도 서슴지 말고 포기하고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합리적이 되고 현대적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⁸²⁾

그는 과학에 대한 신뢰에 의거하여 미래도 매우 낙관했다. “과학적 지식을 정신적 생활 향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장차 인류의 생활이 얼마나 미화되고 충만케 될는지 추측키 어려운 것이다.”⁸³⁾

그러나 두 번째 글에서는 신중한 논조를 구사하여 창조 받은 이는 창조자와 동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로는 하나님이란 근본적 존재를 발견하는 구경(究竟)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고 한계를 그었다.⁸⁴⁾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묵시’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이 그런 연구자를 도와서 우주의 섭광을 계시해준다고 설명했다.⁸⁵⁾ 이렇게 두 번째 글에서는 인간이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이 결합해야 우주의 이치를 잠깐 알 수 있다는 것을 더하여 논지를 조정·보완했다. 전 편에서 운을 댄 창조진화론 문제도 창조의 순서가 단순한 형식에서 복잡한 형식으로 나아간 것이 현대과학의 진화 주장과 같다고 설명하여 그의 말하려는 것의 요체가 창조 순서의 질서정연함을 강조하는 데에 있음을 알게 했다.⁸⁶⁾

나아가 인간의 과학적 관념이 불분명해도 하나님의 묵시는 계속되었고, 어떤 위대한 묵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말한 후, 하나님은 사람의 태도나 지식을 받아 소화하는 정도를 보고 묵시를 한다고 설명했다.⁸⁷⁾ 또한 예수가 이전의 모든 부분적 묵시들을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단언했다.⁸⁸⁾ 결론 부분에서는 그가 글을 쓴 목적이 묵시의 가치, 묵시에 대한 현대적 해석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한 후, 성경 속의 묵시가 점진적으로 불완전한 데에서 완전한 데에 이르렀으므로 성경에 대해 무익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⁸⁹⁾

에비슨은 이상과 같이 현대과학이 성경의 교훈과 상치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해석

82) Ibid., 62.

83) Ibid., 63.

84) 魚丕信博士, 「하나님을엇더케알가」, 『神學世界』 15권 1호 (1930), 68.

85) Ibid., 69-70.

86) “창조의 순서는 흡사히 현대과학적 연구가 증명하는 것과 같으니 처음에 혼돈, 흑암, 流動, 光, 土質의 출현, 식물의 출현으로 단순한 형식에서 복잡한 형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진화는 질서 있는 빛과 흑암이 발달됨에 의하여 동물적 생명이 출현하였으니 처음에는 지상의 수중에서부터 수륙兩接의 爬行 동물이 발생하고 그리고 차례로 禽과 獸, 최후에 사람 곧 창조의 왕이 출현되었다.” Ibid., 70.

87) Ibid., 71, 73.

88) Ibid., 76.

89) Ibid., 76-77.

과 신앙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논증의 과정을 밟았다. 곧 저술목적은 기존 신앙의 보수에 두고, 신앙을 보수하는 방법을 현대주의 및 과학의 발전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는 동안 진화론을 창조론에 대입시키려 했고, 과학에 의한 인간 정신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과도하게 낙관하기도 했다. 그가 진화론에 대해 보여준 일부 수용적인 태도는 언더우드도 진화론을 불신한 것과 대비된다.⁹⁰⁾ 어쨌든 에비슨의 이 같은 주장은 전체적으로 당시에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하던 세대주의 내세론과 충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내세론은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면서 비관적인 현실관을 유포시키고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들의 도입을 신앙에 유해한 것으로 보며 경계하도록 충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전인적 신앙관

에비슨은 모든 미시적인 일들을 거시적인 방향성 안에서 관리하려 했다. 그는 1917년에 발표한 글에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에 크게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지·체(spirit, mind, body), 이 세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YMCA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⁹¹⁾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표방하며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의 종교교육을 불허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킬 계획을 세우면 조만간 그런 방법으로 인해 반드시 초래될 영적인 힘의 부재가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나 전면적으로 도덕이 부재한 양상들을 빚는 결과를 낳아 국가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⁹²⁾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개종자들의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쓰면 신도들이 세상일에 무지하여 분별력을 잃게 하고 미신적인 가르침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삶의 온갖 난제들을 건전하게 생각하도록 두뇌가 훈련된 교인들로 채워진 교회를 양성하는 대신 편견에 눈멀고 무지에 예속된 교회를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⁹³⁾ 그러나 언더우드에 대해서는 언더우드를 추도하는 가운데 그가 한국 YMCA의 초창기에 그것의 가치를 내다보았는데, 곧 YMCA 사역이 신체와 정신의 발전이 포함된 전인적인 인격(all around manhood)에 영성을 연결시키는 법을 교회에게 일깨워줄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평가하여 언더우드와 에비슨 자신의 사상적 일체감을 과시했다.⁹⁴⁾

90) 엄밀히는 언더우드가 종교의 진화론, 곧 ‘원시종교가 진화해서 고등종교로 발전한다’는 이론을 비판했다. 그는 그 이론을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한 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근간해서만 종교가 진화·발전할 수 있고 계시가 없으면 ‘소위 진화는 퇴보(또는 하강, downward)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냉소적으로 언급했다. Horace Grant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232-233.

91) O. R. Avison, “Missionary Efficiency as Dependent on the Balance of Body, Mind and Spiri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3, No. 1 (Jan., 1917), 13.

92) Ibid., 14.

93) Ibid.

94) O. R. Avison, “An Address Delivered at the Memorial Service,” 322.

또한 선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의 세 측면을 모두 개발해서 최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⁵⁾ 그러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열린 마음을 갖고 수용적이 될 것, 선생이 되기보다 형제가 될 것, 자기 활동분야의 사상의 발전과정을 따라잡아 뒤처지거나 타성에 빠지지 말 것, 영적인 식별력과 힘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 육체도 최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제언했다. 육체의 고양을 위해서는 건강에 유의하고, 실망스런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며,⁹⁶⁾ 적절한 오락, 휴양, 운동으로 힘을 보존하되 먹고 마시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과도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다.⁹⁷⁾ 또한 하루 일과표를 만들도록 조언하면서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자기의 일과표를 공개했다.⁹⁸⁾ 거기에는 공적인 업무들 외에 갖가지 사적인 일들에도 시간이 할당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이 여러 수단들에 의해 마음과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을 통해 발전을 이루었다고 느끼기를 희망한다.⁹⁹⁾

에비슨은 이상과 같이 인간 내면의 모든 구성요소, 곧 영·지·체를 모두 포괄하는 전인적인 인간의 개발을 지향했다. 선교사의 자기개발과 사역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인관계에서만 아니라 시대사조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심적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쌓으려 했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모두 포괄적하는 그의 넓은 시야는 언더우드의 것과 상통했다. 그러나 언더우드의 것을 통전적인 신앙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에비슨의 것은 전인적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더우드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을 포괄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 에비슨은 의사의 입장에서 건강한 인간의 개발을 통한 교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 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언더우드는 1885년부터 1916년까지 31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고, 에비슨은

95) O. R. Avison, "Making the Most of the Missionar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4 (Apr., 1920), 76-77.

96) 에비슨이 제시한 그 비결은 하나님의 지도력과 주관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굳센 믿음이다.

97) O. R. Avison, op. cit., 79.

98) O. R. Avison, "How to Make the Most of One's-self and One's Opportunities. Part II.-Making the most of one's opportunitie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5 (May, 1920), 98.

99) Ibid., 99.

1893년부터 1935년까지 42년 동안 활동했다. 그 기간에 둘 다 많은 글을 남겼지만, 자신의 성장과정과 사상을 직접 밝힌 글은 예비슨이 더 많이 남겼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늘 긴밀히 연대했고 활동방향도 비슷했다. 따라서 그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점이 더 많이 거론되었다. 연구자들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한 이유는 그들의 진술 자체보다 그들의 성장환경이나 교육배경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그들의 글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계를 이해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려 했다. 두 사람이 다 개신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신앙관이 정체성의 중심부분을 이룰 것으로 여기고 신앙관을 통해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려 했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두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칭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 서로 병행하는 점만 아니라 어긋나는 점도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의 형성과정에서 언더우드와 영국 청교도 회중교회 전통의 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12세에 미국에 온 직후부터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그 모든 기간에 화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메이븐은 신학교에서도 그를 가르쳤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설교순서를 맡았다. 그러므로 언더우드는 메이븐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에서부터 온 가정의 신앙전통은 메이븐의 영향을 수용할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영향 속으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목사답게 매우 종교적이었던 언더우드는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 교회 신앙으로 신앙관의 중추를 형성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의 남다른 개방성과 포용성 역시 개혁교회 신앙에서 추동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또한 사실이었다면 그가 미국 생활 내내 가까이 살면서 접했고 또 대학을 다녔던 뉴욕이란 대도시의 환경은 이런 추동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고, 그의 신앙 색깔을 희석시키기보다 그에게 문화적 적응력 또는 대응능력을 주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보면, 다른 동료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교회 안으로만 집중시키려 했지만, 언더우드는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모든 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로 안내하려 했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통전적인 복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으고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엮으려 했으며, 이 일에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삶을 연합시키려 했다.

예비슨은 언더우드보다 더 어린 6세에 영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갔다. 그는 아버지의 가정교육을 통해 인문학적인 소양의 기초와 진보적 지향성과 인간적 감수성을 갖게 되었고,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해가는 동안 신앙심이 깊어져 선교사로 헌신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한데 아우르며 연구하고 터득한 것을 다져가며 신앙세계를 형성해갔다. 그렇게 하여 그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론을 세워갔다.

그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장로교로 이적했다. 이는 그에게 교파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 교파 사이에서 가장 큰 충돌요인이 되었던 감리교의

자유지론과 장로교의 예정론이 모두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 둘을 합하면 오히려 완전한 이론을 이루게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과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합리적이고 현대적이고 낙관적인 신앙을 가지는 편에 섰다. 그러나 그가 지닌 신앙내용 자체는 19세기 말 보수신앙의 기초 위에 있었다. 그는 기존 신앙을 보수하는 방법을 현대주의 및 과학의 발전에서 찾아 신앙의 활로를 열어주려 했던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는 한편 에비슨은 진화론을 창조론에 대입시키려 한 점에서 언더우드와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대한 것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교회가 인간의 영·지·체를 모두 함께 개발시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언더우드와 상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을 포괄하려 했던 데에 비해 에비슨은 의사답게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꾀하려 했다. 그러므로 언더우드가 통전적인 복음의 신앙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에비슨은 전인적인 복음의 신앙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내려 했다. 그런 가운데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통전적,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신앙관을 좇아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국제관계를 모두 포괄하면서 연합과 발전을 꾀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참고문헌

언더우드 · 에비슨의 저서 · 기사 · 편지

Underwood, H. G., "Conference: Twenty Years Missionary Work in Korea." *The Korea Field*. Nov. 1904.

_____,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_____,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New York: Macmillan Co. 1910.

원두우, 『예수교문답』, 그리스도성서, 1896.

_____, 「故元杜尤牧師의遺書와如훈講道: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라」, 『神學指南』 1호, 1918. 90

_____, 「성경은 무엇이뇨」, 『신학세계』 제3권 제3호, 1918.

_____, 「하나님의 높이 부르신 상을 얻고자 함」, 『신학세계』 제3권 제4호, 1918.

H. G. 언더우드, 「원두우 강연집」 (1)-(12), 『기독교사상』 10월호, 2012. - 10월호, 2013.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July 6, 1885.

H. G. Underwood, Seoul to F. F. Ellinwood, Dec. 10, 1900.

Underwood, Lillias H., "Horace Grance Underwood-Missionary: A Sketch of His Life and Work for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12, No. 12, Dec., 1916.

_____, *Underwood of Korea*. New York : Fleming H. Revell, 1918.

Avison, O. R.. "Medical Training of Native Helpers," *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 New York, 1900*, Vol. II,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0.

_____, "An Address Delivered at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Late Horace Grant Underwood, D.D. LL.D. Held at Central Y.M.C.A. Seoul, on October 19, 1916."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12, Dec., 1916.

_____, "Missionary Efficiency as Dependent on the Balance of Body, Mind and Spirit,"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3, No. 1, Jan., 1917.

_____, "Instance of Answered Prayer,"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2, Feb., 1920.

_____, "Making the Most of the Missionar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4, Apr., 1920.

_____, "How to Make the Most of One's-self and One's Opportunities. Part II.-Making the most of one's opportunities."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5, May, 1920.

_____, "Chosen Christian College. Laying of Corner-stone of Underwood and Science Halls. Address of President O. R. Avison, M.D." *The Korea*

- Mission Field*. Vol. 17, No. 12, Dec. 1921.
- _____, "Can It Be Done?" *The Korea Mission Field*, Vo. 20, No. 1, Jan., 1924.
- _____, "Memoirs of Life in Korea," mimeograph, 1940 (_____, *Memoirs of Life in Korea*. ed. by H. W. Park. 청년의사, 2012.)
- 魚丕信 博士, 「하나님을 엿더케알가」, 『神學世界』 14권 3호, 1929 • 15권 1호, 1930.
- _____, 「教會聯合」 (一)-(三), 『基督申報』, 1930. 8. 27 • 1930. 9. 3 • 1930. 9. 10.
- 河鯉泳 • 에비슨, 「魚丕信博士小傳」 (一) - (卅三), 『基督申報』, 1932. 1. 6 - 1932. 9. 28.
- [에비슨], 「休戰紀念 大講演 平和」 (上) • (下), 『基督申報』, 1932. 11. 16 • 1932. 11. 23.
- <번역문>
- H. G. 언더우드, 『韓國改新敎受容史』, 이광린 역, 一潮閣, 1989.
- _____,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1885~1916』, 김인수 역,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_____, 『韓國과 언더우드: 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의 언더우드 家』, 서정민 편역,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_____, 『언더우드 자료집』 1,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1.
- _____, 『동아시아의 종교』, 한창덕 역,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 L. H. 언더우드,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선교사』, 이만열 역, 기독교문사, 1990.
- _____, 『舊韓末秘錄』 上 • 下, 에비슨 紀念事業會 역, 大邱 : 大邱大學校 出版部, 1984.
- 올리버 R. 에비슨,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한국 42년: 1893~1935』 上 • 下, 박형우 편역, 청년의사, 2010.

기타 1차 자료

- 奇一牧師, 「元牧師行狀」, 『神學世界』 1권 4호, 1916.
- 길선주, 「말세학」, 『信仰生活』 4권 7호-5권 10호, 1935. 7. - 1936. 11.
- Brown, Arthur J.. "Dr. Underwood's Service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XXIX, No. 12, Dec., 1916.
- Editor. "Graduation Exercises. First Graduating Class, Sevrance Hospital Medical College, Seoul, Korea, June, 3rd 1908, 4 p.m." *The Korea Mission Field*, Vol. 4, No. 8, Aug., 1988.
- _____. "American Church Statics for 1909, Order of Denomination: Prepared for the Christian Advocate, by Dr. H. K. Carroll,"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XXIII, No. 5, May, 1910.
- Hulbert, H. B.. "Ancient Korea," *The Korea Review*. Jan. 1901. 30.
- _____. "Korean Survivals,"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 Society* I, 1900.
- Ladd, George Trumbull. *In Korea with Marquis It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8.
- McLaren, C. L.. "Notes on an Enquir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2, Feb., 1916.
-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15.
- Moore, S. F.. "Steps toward Missionary Union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Vol. XXVIII, No. 12, Dec. 1905.
- Speer, Robert E.. *Missionary Principles and Practice, A Discussion of Christian Missions and of Some Criticisms upon Them*.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2.
- Norman C. Whittemore to F. F. Ellinwood, Nov. 10, 1899.
- Samuel A. Moffett to F. F. Ellinwood, April 6, 1898; Jan. 14, 1902.
- Walter Erdman, Feb. 5, 1905(수신자 불명).

전기 · 연구 논저

- 곽안련, 「조선야소교장로회신경론」, 『신학지남』 2권 1호, 1919.
- 권평, 「에비슨(O. R. Avison)의 인간적 면모(personality)와 그의 선교사역」, 『敎會史學』 10, 2011.
- 류금주,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전도」, 『교회사학』 9, 2010.
- _____, 「내한 의료선교사 O. R. 에비슨의 한국 선교」, 『敎會史學』 10, 2011.
- 문백란, 「한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과 선교활동」,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용규, 「한국교회사에서의 언더우드 위치」, 『신학지남』 통권 제281호, 2004.
- 박형룡, 「신경소론」, 『신학지남』 20권 6호, 1938.
- 박형우, 「올리버 알 에비슨(1860-1956)의 생애」, 『연세의사학』 13권 1호, 2010.
- _____, 이선희,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의료선교사 지원과 내한 과정」, 『역사와 경계』 84, 2012.
- 변종길, 「화란 개척교회의 영성과 경건-Gisbertus Voetius를 중심으로」, 『교회와 문화』 6, 2001.
- 새문안교회, 『원두우(元杜尤), 그 섭리(攝理)의 발자취』, 새문안교회, 2007.
- 서정민, 『언더우드가 이야기』, 살림, 2005.
- 『아펜젤러 · 언더우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제4회 아펜젤러 학술포럼 · 제8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5. 5. 31-32.
-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쿰란출판사, 2002.
- 여인석, 「에비슨의 사상」, 『延世醫史學』 제13권 제2호, 2010;

- 연세대학교 의료원, 『에비슨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강연집』, 연세의료원, 1993.
-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우리 나라 근대화와 선교 활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_____,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한국 근대 서양의학과 근대교육의 개척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 이기훈, 「에비슨과 일제하 고등교육-세브란스,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延世醫史學』 13권 1호, 2010.
- 이만열, 「한국 의료선교와 에비슨」, 『연세의사학』 13권 1호, 2010.
- _____, 외, 『언더우드 기념강연집』, 언더우드기념사업회 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 이선희,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선교사역과 에큐메니즘」,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_____, 「올리버 알 에비슨(Oliver R. Avison)의 연희전문학교 사역」, 『신학논단』 제 64집, 2011.
- 이용민, 「게일과 헐버트의 한국사 이해-서로의 상반된 사관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2007.
- 정약종, 「주교요지」(1885년 간행 목판본), 『주교요지(下)』, 국학자료원, 2003.
- 정종훈, 「언더우드의 생애, 선교활동, 정신에 비추어본 기독교대학의 학풍」, 『장신논단』 Vol. 47, No. 1, 1915.
- 조재국, 「연희전문학교 설립에 따른 에비슨의 교육 선교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제80집, 2015.
- 주도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정신」, 『한국개혁신학』 40, 2013.
- 최재건, 『조선후기 서학의 수용과 발전』, 한들, 2005.
- Clark, Allen DeGray. 『에비슨 전기: 한국 근대의학의 개척자』, 홍사석 외 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 Milton, Anthony. "Puritanism and the continental Reformed church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ritanism*. ed. by John Coffey and Paul C. H. L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Scheitle, Christopher P. & Kevin D. Dougherty. "Density and Growth in a Congregational Population: Reformed Churches in New York, 1628-2000,"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Vol. 49, No. 3, Mar. 2008.